



제8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경험 나눔

2017년 10월 13일

全國信用卡與消費金融暨生活重建受害者聯絡協議會

(전국 신용카드 소비금융 및 생활재기문제 피해자 협의회)

회장 岡田 悟

나는 전국 신용카드 소비금융 및 생활재기문제 피해자 협의회 회장 岡田悟이다.
나는 자구회(自救會)의 회장으로 고리대의 피해자(당사자)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고지현의 고지시에 있는 택시회사에서 14년 동안 일하였다.

내 주요 임무는 운송의 관리와 차량의 안배였고, 15대의 택시를 41명 기사의 교대근무 하에서 24시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지현은 坂本龍馬(사카모토 료마)의 고향이고 足摺岬、桂濱 등의 관광명소들이 있으며 견어 그리고 산호공예품으로 유명한 곳이다. 고지현은 관광객들이 많아서 택시가 자주 부족하였다.

1988년에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瀬戸大橋(세토대교)는 15년의 공사 끝에 개통되었다. 3년 후, 세토대교를 통과하는 자가용이 급증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시코쿠 전역의 택시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택시 기사의 수입은 커미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업적이 줄면 생계에도 영향을 준다. 어떤 기사들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낮에 손님이 적을 때 빠징코를 하거나 도박을 한다. 결국 회사의 영업금까지 횡령했다.

기사들이 퇴근 후에 매일의 일보표와 영업금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영업금을 횡령한 탓에 현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부금융업자(日賦金融業)나 소비자금융에게 돈을 빌렸다.

일부금융의 규칙은 10만 엔을 빌릴 때 계약금 1만엔과 선불 이자금 1만엔, 총 2만 엔을 먼저 빼는데 실제 빌린 돈은 8만엔이다. 갚은 방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채권자에게 2천엔을 갚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2만엔을 빼고 빌린 8만엔에는 10만엔을 갚아야 한다. 실질적 이자는 4만엔이다(최초의 뺀 2만엔을 이자로 본다. 8만엔을 빌려서 10만엔을 갚기 때문에 2만엔의 이자가 더 발생한다. 그래서 총 실질적 이자는 4만엔이다.) 연이율은 268% 이나 달한다. 그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린다. 돈을 갚는 과정에 또 전대(轉貸)를 한다. 그리고 나서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곤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내 일은 15대의 택시를 41명의 기사의 교대근무 하에서 24시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택시기사 일은 젊은 사람은 구하기 힘드므로 주로 연금을 받고 나서 차후 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나절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휴가를 낸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상황속에서 관리자는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겸직하는 기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퇴근한 기사에게 추가근무를 부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가 동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나에게 일부금융의 보증인을 부탁하는 사람도 생겼다. 한 운전기사는 영업금을 횡령해서 일부금융에게 돈을 빌리고 싶은데 나에게 보증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0만엔을 빌려서 매일 2000엔을 갚는다고 채권자도 담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다고 해서 많은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내가 보증 했던 기사A는 이직한 후에 사라져버렸다. A와 서로 보증을 하는 기사B도 소식이 끊겼다. 그 후에 일부금융업자의 추심 전화를 매일 받게 되었다. 원래 한 업자에 10만엔을 담보를 잡았었는데 그 계약은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변경되었다. 마지막에 3개 업자에게 200엔정도 빌린 것이 되었다. 회사로 업자들의 닥달 전화가 자주 왔다. 받을 때마다 상대방이 “岡田, 돈 빨리 갚아라” 하였다. 한 번 무선기로 기사들을 지휘했을 때, 무선기가 켜진 상태에서 대부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생명을 쥐라” 말하는 대화가 모든 기사에게 전해졌다. 이 사건 때문에 해고를 당하였다.

이 이야기는 택시를 탄 한 손님에게 들렸다. 그는 고지 신용카드 및 금융문제 대책협회와 관련 있는 사법서사였고 택시기사에게 명함 한 장 주었다. 나는 곧장 그와 상담을 했다. 실제적 채무 금액 그리고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한전율을 느꼈다. 그 분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나에게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가르쳐 주었다. 나의 수입, 빚을 갚을 때 필요한 자금, 소비자 금융의 남은 채무와 이자, 민간 대부업의 남은 채무와 이자 그리고 일부 금융의 이자 등을 조사하였다. 계산 결과는 일부금융의 빚은 2인분 54만엔, 민간



대부업은 3인분 61만엔, 3개의 소비자 금융은 총148엔이었다. 조정을 통해 채무 총 액수는 76만 엔으로 감축되었다.

내가 연금을 담보로 한번에 76만 엔 원금을 갚고 채무를 모두 탕감하였다. 기사A는 일봉을 받기 때문에 일부업자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를 믿은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리대의 기제는 이렇게 고액의 이자까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끔찍하였다. 이 사건은 회사 동료들에게 폐를 끼쳤고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을 줬기에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나는 2007년 고지현에 자구회(自救會)를 설립한다고 할 때 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신용카드 및 금융문제 대책협의회의 木村達也변호사, 대책협의회, 피해자 연락협의회의 협력 아래 高知鱗會(고지린회)를 세웠다. 그 때 부터 다중채무 문제에 관련된 상담을 10년 넘게 해 왔다. 지금 내 와이프 또한 자구회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고 생활 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채무 배후의 원인과 문제를 탐구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론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구회 성원들과 함께 토론하여 전국적인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

대만과 한국의 친구 여러분, 빈곤을 소멸하기 위해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내자.